

쓰레기와 가래침



孫 素 熙

요즘 길을 가다보면 가래침을 스스럼없이 툭툭 뱉어내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며칠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흥미와 감격을 가지고 바다를 보는 국립박물관 앞에서 절절한 신사분들이 툭툭 침을 마구 주저도 없이 뱉아내고 있었다. 그 날따라 하늘이 맑고 푸르려서 박물관 주변의 나무의 푸른빛과 흰길과 아까운 푸른채 있는 잔디들이 온통 그림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 아름답고 맑고 드높은 하늘 아래서 더욱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끓고 있는 눈앞에서 한국인 신사들이 그 모양으로 가래침을 뱉어내는데는 정말 기가 막혔다. 하도 기가 막혀서 인원수를 세여보니 다섯명 중 세사람 꼴로 가래침을 뱉아내고 있었다.

길을 걸으며 곰곰히 그 까닭을 생
파피되는 우리들 낙원

각해보니 그것은 분명히 덜덜차의 연기와 공기마다 서울시가 뱉어놓은 쓰레기로 인해 급격히 불어난 증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우선 거리에 나가면 눈이 아프고 목이 막힌다. 목이 막히니 가슴이 답답해져서 가래가 끊겨 되므로 그것은 저절로 뱉아내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공지는 대개 아이들의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다. 거기 쓰레기가 부어져서 바람이 무연탄 재를 시뭇쭈게 날리고 있고, 야채찌꺼기가 썩고 있고, 생선뼈다귀와 그 내장이 고약한 냄새를 풍겨서 병균이 득실거리는 파리, 모기 따위를 불러드리는 구실을 도맡고 있다.

그러한 공지라도 공간이 열려져 있으므로 해서 아이들은 즐겨 그곳을 찾게 되는 것이다.

어디 공지뿐인가. 서울시의 쓰레기는 성동의 공설 운동장이거나 장마당 한가운데거나 길가의 모퉁이거나 조금만 유의해서 보게되면 없는 곳이 없다.

그 쓰레기들을 것처럼 버려두지 않을 수 없는 여러가지 여건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상태를 계속 이어 나간다면 서울시민은 아주 철저한 자가용족을 제외하고는 온통 쓰레기로 인해 가래침을 뱉어야 하고 아낙네들은 비싼 비누와 수도물을 써가며 손잔등에 물 마를 시간도 없이 팔래를 해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신사들도 마찬가지다. 무연탄재를 시뽀렇게 뒤집어 쓴 머리이므로 조금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면은 외출에서 돌아올 때마다 머리를 감아야 하고 목간통에도 하루 한번은 다녀와야 할 것이다.

날마다 속옷을 갈아 입고 날마다 샤워를 하고 날마다 면도를 하는 남자들이 어느 문명국사람일지라도 그 프로테이지가 백프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물며 개발도상국인 우리네들이야 고작 해서 5프로 가 될지, 어떨지? 하여간에 이 쓰레기 먼지로 인해 우리네 남자들도 부득히 수도물을 많이 쓰는 국민으로 승격이 될 것도 같다.

이러한 이해와 득실을 과학적으로 면밀히 따져 보면 어떨까. 우선 머리를 씻고 먼지를 하루에 두번이상 털어낸다고 하더라도 기관지 속으로 흡수된 해독은 씻어낼 도리가 거의 없으니 이러한 해독을 어떻게 할지, 참으로 답답하다. 그보다도 우리의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해독을 그대로 마시게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에 크나큰 차질이 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쓰레기차의 기름값을 절약하다 보면 시민이, 여러면으로 입는 피해와 손실은 쓰레기 차의 수십품절이 된다고, 누구라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한동안은 어찌된 셈인지 적황색(赤黃色)재복의 청소부들이 빈둥거리며 앉아늘면서도 참다 못해 가정집에서 골목길에 쓸어 모아둔 쓰레기조차 머

칠씩 그대로 버려두는 경우를 흔히 보아왔다.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 이유와 비슷한 이치리라.

그렇던것이 최근에는 길 주변이 한결 깨끗해졌다. 서울시의 인사이동으로 청소소가 긴장해 있는 탓인지? 계속 그 긴장이 늦추어 지지 말았으면 하고 바란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가래칩 뱉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서 줄어 들게 된다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것을 보아주는 다른나라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원이 적은 우리는 관광자원으로 한몫 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우선 우리 자신들의 보건을 위해서 쓰레기 공해를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하겠다. <필자=여류소설가>



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가래칩을 뱉는 것은 문명국에선 볼수 없다고 말하는 孫素熙 여사